

"커피 마시고 싶은데 잠은 자고 싶고"…디카페인 매출 55.2% ↑

등록 2025.12.20 22:00:00



[서울=뉴시스] 백동헌 기자 =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요즈음 아이스크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함유되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커피를 비롯해 커피 프랜차이즈 음료, 집이나 회사,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커피믹스까지 다양하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에서 점원이 커피 코너를 정리하고 있다. 2021.07.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최근 건강 관리, 수면의 질, 컨디션 조절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강해지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엠브레인 닷데이터의 구매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의 성장 속도가 일반 커피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주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된 디카페인 관련 제품의 구매 추정액은 2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동일 기준 구매액(1466억 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성장세로, 디카페인 커피가 대중적인 선택지로 자리잡았다는 걸 잘 보여준다,

엠브레인 닷데이터는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또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도 '건강'이라는 부가가치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심리적 ROI(투입 대비 소비자가 얻는 심리적 만족감)'의 결과로 봤다.

지난 7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 맛을 똑같이 즐기면서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62.5%)는 데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뉴스시스】이종철 기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모델들이 22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22일부터 전국 1060 여개 매장에서 선보이는 스타벅스 디카페인 원두 기준 99%의 카페인이 제거되어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들이나 임신, 수유 중인 고객,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은 고객들에게 추천하기 적합한 음료인데 스타벅스 디카페인 원두를 활용해 제공 가능한 음료로는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를 포함해 에스프레소 샷으로 제조할 수 있는 모든 음료에 해당한다. 2017.08.22. jc4321@newsis.com

또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더라도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다(48.4%)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디카페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각 브랜드를 살펴봐도 눈에 띈다. 스타벅스 디카페인 음료의 연간 구매 추정액은 1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8%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48.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저가 시장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다. 메가MGC커피의 디카페인 구매 추정액은 4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0% 증가했고, 컴포즈커피는 127.2%에 달했다.

내년 3월부터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향후 디카페인 커피가 시장 내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fgl7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